

KB운용, 지배구조 개편·주가 상승 ‘두마리 토끼’ 잡았다

KB주주가치펀드 수익률 상위 1%
에스엠, 주주서한 보낸 후 주가↑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모범 사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인 주주행동으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 올리면서 해당 전략으로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은 고공행진이다.

9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KB주주가치펀드(주식)A'는 연초 이후 15.6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중 3번째로 높은 수익률이다. 해당 기간 코스피 수익률(1.38%), 코스닥 수익률(4.75%)을 크게 앞지른다.

이는 KB운용의 성공적인 주주행동의 성과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인하고,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최근KB운용이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라이크 기획과의 합병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에스엠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지난 30일부터 7일까지 수익률은 26.96%다.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운용규모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연초이후 수익률
한국투자퇴직연금동행밸류[자](주식)(C)	한국투자신운용	2016-01-04	13	-4.65	3.48	17.97
한국투자거꾸로1(주식)(A)	한국투자신운용	2003-12-18	84	-5.38	2.09	16.4
KB주주가치포커스(주식)A	KB자산운용	2018-03-12	242	0.63	8.17	15.69
한국투자연금저축동행밸류[자](주식)(C)	한국투자신운용	2015-07-10	22	-4.8	2	15.12
한국투자동행밸류[자]1(주식)(C5)	한국투자신운용	2005-10-25	547	-4.81	1.97	15.05
KTBVIP스타셀렉션[자](주식)C-A	KTB자산운용	2009-07-17	35	-1.12	6.48	14.6
KTBVIP밸류투자연금[자](주식)C-C	KTB자산운용	2015-08-05	47	-1.12	6.47	14.57
KTBVIP밸류연금저축[자](주식)C-C	KTB자산운용	2015-07-27	25	-1.11	6.46	14.56
프랭클린그로스(주식)5	프랭클린템플턴투신	1999-01-11	102	-4.39	1.34	12.2
에셋플러스알파로보코리아그로스성과보수[자]1-2(주식)C-A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17-07-03	37	-3.91	0.22	11.94

*6월 7일 기준.

(자료=펀드스퀘어)

증권사들은 에스엠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렸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B운용의) 주주서한은 케이팝의 글로벌화라는 수혜를 함께 누리리라 믿고, SM도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한 만큼 분명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 목표주가를 5만2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11.5% 상향 조정했다. KTB투자증권 역시 4만6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KB운용의 '주주행동주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다. 그 중심에는 KB운용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스튜어드십코드 팀에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올며 겨자먹기'식이 아니라, 도입 전부터 수년 간 스터디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온 덕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엔지니어를 비롯해 스튜어드십코드 팀은 도입 2년 전부터 사회책임투자(SRI)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 자산운용사의 모범으로 불릴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KB운용은 올 1분기 총 904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3개 안건에 반대했다. 반대 비중은 9.2%로 1% 남짓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더욱이 KB운용은 단순히 '배당확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배당이 과도할 경우 업황에 따라 '축소배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1분기의결권 공시 내용을 보면 셸트리온, 광주신세계에는 "배당가능이익보다 과소한 배당을 하고 있다"며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는 "과도한 배당 대

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며 주주 제안에 따른 배당확대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KB운용이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KB금융지주의 계열사이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부 재벌 계열사에 속한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에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들 역시 주주행동의 타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운용은 지주사 자체가 여성 임원 확대 등 선진화된 지배구조에 앞장서고 있고, 재벌기업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행동의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KB운용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워지게 됐다. KB운용은 광주신세계, 골프존, 참좋은여행 등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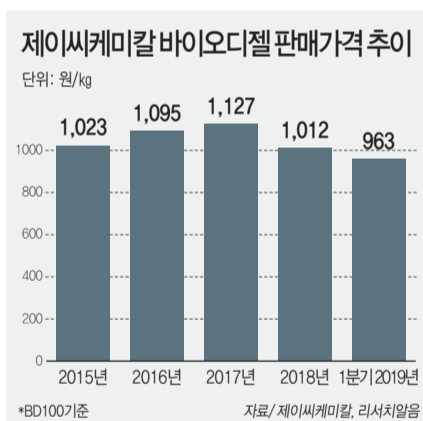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B운용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기업들은 긴장 상태"라며 "KB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주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높이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급성장하는 바이오 연료 시장... 수요 늘어 실적 개선 기대

株라클라의 종목 제이씨케미칼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등 전문 생산 에너지원 다양화·대기환경 개선 확대 성장 가능성 높고 설비 증설효과 기대



북미 지역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적은 예상보다 실망스러웠다. 2017년 kg당 평균 1127원이던 바이오디젤 가격이 지난해 1012원으로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 1분기에는 963원까지 하락하면서 실적 정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대두 가격이 급락하면서 바이오디젤 원료인 대두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판매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원료 가격만 반등하

면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대두유 가격은 연초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다"면서 "올해 글로벌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여서 추가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 역시 최근 EU가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입량 감소를 논의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중국에서 팜유 수입 확대 계획을 밝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바이오중유 시장도 확대 기로에 있다. 바이오중유는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고기 기름, 동물성 유지 등으로 만든다.

정부는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전국 4개 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시범 운영한 결과 품질은 기존의 벙커C유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염물질 배출은 크게 낮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기존 5기의 중유발전

기에서만 허가됐던 바이오중유 사용권한이 지난 3월부터는 전국 17기 모두 중유발전기로 확대됐으며, 올해 바이오중유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성장한 60만kl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 연구원은 "바이오중유 시장의 지속 성장을 예상한다"며 "제이씨케미칼은 이에 대비해 300억원대의 설비투자를 단행해 올 4분기부터 분기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증설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제이씨케미칼의 부산물 부문 매출액은 2016년 23억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3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8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제이씨케미칼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54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 53.6%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수급적 측면에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오버행 이슈는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미전환된 전환사채 잔액은 31억원으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4.3% 수준이다.

/손영지 기자

주간펀드동향 美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됐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5월31일~6월6일)간 전주 대비 2.26% 상승한 2069.11포인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해당기간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474억원과 1416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50% 상승한 2095.83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1.95% 상승한 1004.68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77% 올랐다.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 수익률이 2.03%로 가장 우수했다. 국내 주식형펀드로 총 373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 순자산은 1조430억원 늘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0.28% 내렸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브라질(3.25%), 중남미(2.14%), 신흥유럽(1.84%) 등이 올랐고, 베트남(-2.45%), 중국(-1.13%), 일본(-0.36%) 지역의 펀드가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신흥아시아주식형을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발생하면서 순자산은 720억원 줄었다.

/손영지 기자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4360가구 공급

분양캘린더

6월 둘째 주 전국 436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6월

둘째 주 전국 436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힐스테이하임참좋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힐스테이트다사역' 등이 주요 단지다. 원건설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

구 C1블록에 '신내역힐스테이하임참좋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218가구다.

대림산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에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시민공원'을 공급한다. 전용 39~107㎡ 총 1401가구로 일반분양은 856가구다.

현대건설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힐스테이트 다사역'을 공급한다. 아파트 674가구와 오피스텔 62실로 모두 전

용 84㎡ 단일 면적이다.

건보주택(모텔하우스)은 ▲경기 과천시 동매동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등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 28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며 과천시지역을 포함한 17단지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